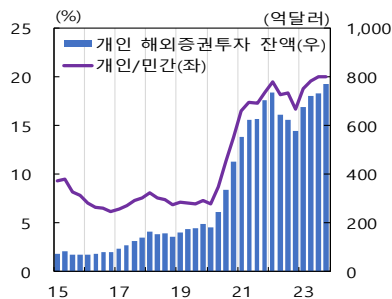


6. 개인투자자의 해외증권투자 특징 및 평가

(국제국 외환분석체계개선반 표상원·전정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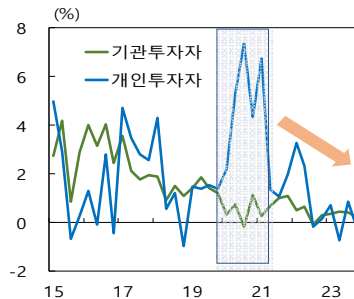
1. 개인투자자의 해외증권투자 잔액은 미 증시 호조 등의 영향으로 평가이익이 발생하면서 23년말 사상 최대규모(771억달러)를 기록하였다. 민간부문의 해외증권투자 잔액에서 개인이 차지하는 비중은 19년말 7.3%에서 23년말 20.0%로 높아졌다.
2. 개인투자자는 금융시장 테마에 따라 일방향의 투자행태를 보이면서 투자규모에서 상당한 변동성을 보였다. 개인투자자는 17년에는 조세제도 개편 등으로 브라질채권에, 20년 이후로는 미국주식, 23년 이후로는 미국채권에 대한 일방향 투자행태를 보였다. 여기에는 FOMO(Fear of Missing out) 심리 작용, 과잉확신, 군집거래 등 행태적 편이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3. 특정 종목에 대한 편중이 심화되고 레버리지 ETF 투자를 확대하는 등 리스크 선호 경향이 강화되었다. 개인 보유 해외주식 중 상위 10개 종목의 비중이 20년말 39%서 23년말 48%로 높아졌다. 특히 미 주가지수 및 국채가격 변화 대비 3배의 변동성을 추종하는 주요 ETF에 대한 투자규모가 20년말 1.9억달러에서 23년말 58.0억달러로 크게 증가하는 등 공격적 투자성향이 더욱 강화된 것으로 보인다.
4. 한편 개인투자자의 투자행태는 국내 기관투자자와 달리 글로벌 금융여건과의 관계가 뚜렷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기관투자자는 글로벌 금융시장 불안기에 리스크관리 등을 목적으로 해외증권 투자규모를 축소하거나 회수하는 모습을 보인 반면, 개인투자자에게는 이와 같은 행태가 나타나지 않았다.
5. 개인의 투자행태 특성을 고려할 때 외환부문의 변동성 확대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금년중 외환수급이 경상수지 확대 전망(23년 355억달러 → 24년 520억달러 예상)으로 개선될 것으로 예상되나 지난해 일시적으로 큰 폭 유입되었던 기업의 해외유보소득¹⁾이 줄어드는 가운데 개인투자자의 해외증권투자가 일시에 확대될 경우 외환수급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민간부문 대비 개인투자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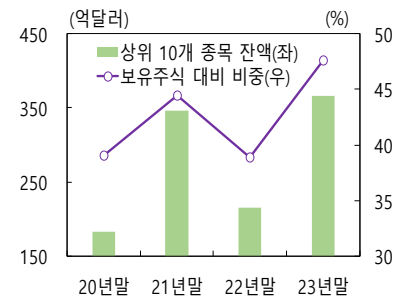
주: 1) 순투자 기준
자료: 외환전산망

<잔액대비 순투자 비율 추이>



주: 1) 순투자 기준
자료: 외환전산망

<상위 10개 종목 해외주식 잔액 및 비중>



자료: 예탁결제원

1) 직접투자 일반배당수입(억달러, 국제수지 기준): 20년 55 → 21년 133 → 22년 144 → 23년 434